

'공명선거' 불자들이 나섰다

불민협 부정감시단 발족...운불연 차내 홍보물 비치

6·27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불교계가 마침내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나섰다.

불민협(상임대표 법타스님)은 30일 오후 2시 총무원 1층 강당에서 '불교시민단체 정책 캠페인 및 부정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타스님은 지난 20일 감시단 창립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지자체 선거에 대비 공명선거를 위해 불교계가 앞장섬으로써 지역사회의 이바지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발대식후 불민협 11개 단체

2백여 회원은 조계사를 출발 중각을 지나 탑골공원에 이르는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공선협과 연계, 범불교적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인 불민협은 공명선거 감시단 고발청구 개설, 불자후보지원을 위한 리서치 사업, 스티커와 전단 배포를 통한 지속적 캠페인 등을 주요 골자로 적극적인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하게 된다.

전국의 운전불자들로 구성된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회장 문영호)도 지방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기치로 공명선

거 파수꾼으로 나선다.

한국운불연 전국 11개 지역 1천여대의 운전 불자들은 차안에 '불법선거신고란'을 설치하고 시·군 선관위가 만든 선거 부정 신고용 우편엽서와 각종 공명선거 홍보물을 함께 비치하는 한편 공명선거 스티커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BBS교통통신원 불자회도 한국 운불연의 공명선거 감시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또한 속초 불교청년회는 '내 고장 주인의식 공명선거로 꽃피우자'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앞장서기로 했

으며, 충주불교연합회도 지역 20여개 단체와 연계해 가두캠페인을 비롯한 공명선거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공명선거 감시운동은 범불교적 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현재 서울과 지방 공선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가 부산 불교자비원등 소수 단체편입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영우 기자)

전국사찰 '여름수련' 신청 접수

7월2일부터 실시예정

시한부출가로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여름수련법회가 7월2일부터 8월10일까지 2달간 전국 각 사찰에서 실시된다. 송광사(주지 현고)는 '짧은 출가 기간 깨달음'이란 주제로 6차에 걸친 수련일정을 정하고 6월 20일 까지 접수를 받는다.(0661-53-2130)

특히 송광사 4차(7월23일-27일)수련회는 교사수련법회로 현직교사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인사(주지 지관)도 7차에 걸쳐 수련법회를 실시하며 중, 고등학생을 위한 수련법회(7월 24일~27일)를 마련했다. 6월15

일 접수마감(0599-31-1001)

또한 해남 대흥사(주지 천운)는 금년에 일반인을 위한 여름수련회(3차)를 마련하고 6월 30일까지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634-34-5502)

이밖에도 화성 신홍사(주지 성일)는 7월23일~30일까지 어린이, 중등학생 여름수련캠프를 실시한다. 해인사 해운스님(해인사 포교국장)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수련법회는 비록 4박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일반인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협 발기인대회 개최

조계종, 7월5일경 창립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승)는 지난 19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신협합동조합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신협명칭을 (가칭)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신협합동조합으로 결정했다.

이날 총무원 간부스님과 직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조계종 총무원 스님 및 직원과 조계사 스님 및 신도로 하며 출자금은 1구좌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오는 7월 5일경 창립총회를 개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발기인대표로 사업국장 정민스님을 선출했다.



◇지난 17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서 신장 이식수술을 마친 원공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지었다.

원공스님 신장기증 '자비행'

생명공양 환희심... 퇴원후 암자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스님들에게 있어 자의 신장기증은 보살직 없는 작은 보시에 불과합니다."

깜마른 체구, 아직 미진조차 스치지 않은 듯 옛날 얼굴의 원공스님(27세)은 자신의 신장기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오랜동안 투병해온 원공스님(남,51세)을 건강해진 새사람으로 인도한 젊은 수행자 원공스님은 얼마전 재미교포 정근수행보살의 생명공양행을 접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을 되돌아 보고 더욱 용맹정진하고자 신장기증을 결심, 생명공양실천본부의 문을 두드렸다.

두달여 동안 속초 보광사서 서울을 오가며 20여가지의 검사를 받고 지난 17일신장기이식 수술에 들어갈때까지 스님은 오로지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환희심 하나로 주위사람들의 염려를 녹여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 심한통증이 시작됐을때 항상 웃으며 삶을 마감할 것이라 다짐했던 내가 이런 작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과연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부르며 갈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지난 24일 퇴원과 함께 밀양 투매산굴의 한 암자로 떠나기 위해 길을 걸었다.

이은자 기자

조계사 청년회 창립18주년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성상) 창립 18주년 기념법회가 6월3일 오후 4시 조계사 법당에서 봉행된다.

창립이후 성도재일 예술제 제정, 3천배 철야정진 기도, 단오절 민족행사 제정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조계사 청년회는 법회에 이어 재동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종로경찰서 경승실 31일 개원

종로경찰서(서장 이택순 총경)는 31일 오후 4시 30여명 규모의 법당을 마련 경승실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경찰서 별관 2층에 마련된 법당은 휴게실도 겸비하고 있어 불법포고는 물론 직원들의 휴식처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전불련 통일문화제 개최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22일 수송옥에서 교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 계획과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월3일 갖게될 (가칭) 일하는 불자들의 모임' 창립과 7월1일로 예정된 '통일문화제' 등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정한 전불련은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중사업과 조직사업, 활동인력 양성사업을 펼칠 것임을 표명했다.

청교련 아시아축제 참가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지난 30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축제'에 청소년 우수단체로 참가, 화관무를 펼쳤다.

청교련은 우리나라를 비롯 13개국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화의 실현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상호이해, 교류증진에 역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또 청교련은 31일 이번 행사에 참가한 13개국 공연단 중 6개국을 초청, 명성여고에서 청소년 한마당을 마련한다.

대각사 화재 3천여권 소실

지난 24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종로구 대각사 지하서고에서 불이 나 내부 7평과 법보시용으로 대각사에서 발행해 보관해오던 (불타조사원류)등 3천여권을 태우고 20분만에 꺼졌다.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자나까스님 위파싸나 법문

미얀마 고승 우자나까 대선사가 한국을 방문 지난23일 서초동 유마선원에서 위파싸나 관법수행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우자나까 선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와우정사에서 2박3일간의 위파싸나 수련법회를 마치고 29일 출국했다.

국제포교사 연수생 12명 선발

조계종, 스님4명 포함 학생·주부·직장인등

해외포교의 선봉장이 될 국제포교사 연수생 12명이 선발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지난 20일 국제포교사 연수생 공개모집을 통해 스님 4명을 포함 대학교수 학생 주부 직장인등 재가불자 8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 연수생들은 31일부터 연도 국제불교대학에서 6개월간 포교사교육을 받게되며 연수후 국제포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국제포교사가 되면 해외 포교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포교원은 21일 부산 불교교육대학에서 부산·경남지역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2백80여명의 포교사가 참석, 한국의 종교현황과 포교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포교원은 지역별로 포교사

연수교육을 계속 진행하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주·전북지역지역 (6월4일 오전 11시 화엄불교대학), 대

구·경북지역(6월11일 오전 10시 대구불교대학), 서울·경기 지역(6월11일 오전 10시 총무원 청사 1층강당)



◇정부가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는 골프장 건설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동국대 '21세기 기획단' 출범

제3캠퍼스·연극영화학원 운영등 발표

종합학교인 동국학원에 21세기 대비한 통역학원, 연극영화학원 등이 설립될 전망이다.

5개분과 총1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동국대 '21세기 기획단(위원장 정병조교수)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21세기 기획단이 발표

한 계획(안)은 △대학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대학 경영 합리화 방안 △학사 행정의 쇄신 방안 △수익사업 연구방안 △신학풍조성 운동 등이다.

21세기 기획단은 대학 중장기 종합발전의 세부내용으로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 건립, 해외분교설치, 학제 및 학과 명칭연구 등을 제시하고 사

회 교육프로그램으로 통역학원, 박물관대학, 연극영화학원 등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주한미군범죄 심각 불교인권위 대책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와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재원스님)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만취미군의 성추행, 시민폭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사 승가대 대책위 구성...승인 철회 주장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계획승인과 관련 해인사 승가대는 대책위원회(위원장 광원스님)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인사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승인은 자연보호

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다"며 "민족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승인이 백지화 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양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불교사회복지회...31일 서울시와 계약 체결

불교사회복지회(사무국장 해인스님)가 서울 강서구 가양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허가받아 오는 31일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가양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흥타아동복지가 운영을 포기, 4개 단체가 을 초부터 경합을 벌인 끝에 불교사회복지회가 운영을 맡게됐다.

범어사 앞 아파트 건설 반대 여론 급속 확산

부산 범어사(주지 경관스님) 앞 아파트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와 신행단체, 환경단체등 회원 1백여명은 지난 23일 연제구 연산2동 경동아파트 건분주택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동건설측은 아파트 건설을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범어사는 6월6일 범어사 보제사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고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각계에 진정서 보내기 운동등을 펼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문스님들 기금 기탁 증양승가대인 결의대회

증양승가대(학장 송산스님)는 지난 24일 개교 16주년을 기념해 학사이전을 위한 '증양승가대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증양승가대 교수협의회, 동문회, 학생회의 공동결의로 이뤄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제3회 동문스님들이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에 내놓기도 했다.

행자교육 공간마련 시급 불학연구소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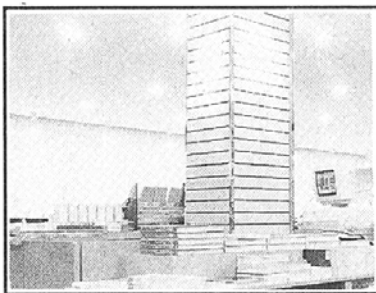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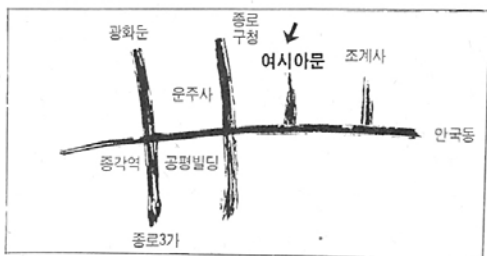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덕운)는 지난 24일 녹수청산에서 '행자교육의 교육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성우스님(파계사)은 "행자교육은 교학위주의 강의보다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행중심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며 "행자교육원의 공간마련과 상설교수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8월16일까지 7차에 걸쳐 교육관련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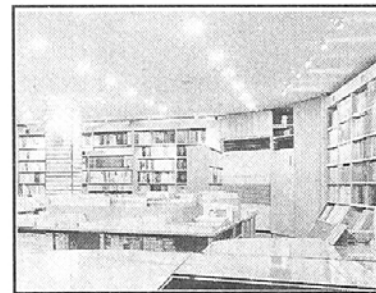
불교, 불교, 불교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